창사 65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제8454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3년 6월 7일 수요일 (음력 4월 19일)

"먹고 입기도 겁난다"…식품·의류 물가 '고공행진'

5월 광주 가공식품·외식물가 7.2%·6.6% '쑥'
의류·신발 물가상승률 8.1%…31년만에 최대치

광주지역 식료품·의류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생활 필수품인 식료품·의류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6일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 오르는 데 그쳤다. 2021년 10월(3.2%)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상승 폭이 확연히 좁혀지며 올해 들어서도 2-5월 4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광주 소비자물가 역시 3.2% 상승하며 전국 수치와 동일하게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치솟은 식료품·의류 물가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가장 자주 구매하는 필수품목인 만큼 체감도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지난달 기준 광주지역 라면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3.0%나 올랐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던 2008년 4월(13.1%) 이후 상승 폭이 동일했던 지난해 3월(13.1%)에 이어 최대 상승률이다.

라면과 함께 초콜릿(27.9%), 치즈(25.8%), 커피(14.4%), 빵(12.6%), 삼계탕(12.3%), 피자(12.2%), 스낵과자(10.6%) 등 먹거리 지표인 가공식품과 외식 부문 세부 품목 112개 중 37개의 상승률이 10%를 웃돌았다.

전체 조사 품목 가운데 상승률 10% 상회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가공식품(7.2%)과 외식(6.6%)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 역시 고물가의 영향 속에 1년 전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값은 1년 전인 지난해 5월보다 평균 5.4% 상승했다. 라면(3천940원→4천415원)은 무려 12.1%나 올랐다. 호두과자(4천548원→4천936원) 8.5%, 돈가스(9천341원→1만1천111원) 8.2%, 어묵우동(6천60원→6천403원) 5.6% 등의 가격 상승도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엔데믹 영향으로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의류·신발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다. 지난달 광주 의류 및 신발 물가 지수(통계청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1% 올랐다. 1992년 5월(9.3%) 이후 31년 만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4월만 하더라도 1.4%에 불과했던 의류·신발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3%를 기록하며 상승 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이어 11월 5.1%, 올해 3월 6.0%, 5월 8.1%까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증가 폭이 5배 이상 커지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오름세가 둔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식품·의류 외에도 주택·수도·전기·연료(7.8%), 음식·숙박(6.6%), 기타 상품·서비스(6.5%), 가정용품·가사 서비스(5.8%), 오락·문화(4.6%) 등의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총지수보다 상승률이 낮은 분야는 교육(2.4%), 보건(1.8%), 통신(1.0%), 주류·담배(0.4%), 교통(-7.1%) 뿐이었다. /양시원 기자

전남産 곱창김 '햇바디1호' 20년간 품종 보호

해양수산과학원, 품종보호권 획득…양식어가 소득 증대 기대

기존 잇바디돌김보다 채취 횟수와 생산량이 많은 '햇바디1호'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 품종관리센터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6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연구사업 착수 후 8년 만에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 품종관리센터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이 결정된 '햇바디1호'는 향후 20년간 품종 보호를 받는다.

일명 '곱창김'으로 불리는 '잇바디돌김'은 우리나라 토종 김으로 맛과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좋아하는 품종이다. 전남지역에서 10월부터 3개월만 생산되는 품종이다. 〈사진〉

잇바디돌김은 김 양식 품종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0-12월에 생산되는 김으로 길이가 길고 가늘어 구불구불한 모양이 '곱창' 같다 해 '곱창김'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동안 잇바디돌김 양식은 씨앗(각포자) 형성률이 낮고 김발에 씨앗을 붙이기가 어려워 생산량이 일정치 않고 해양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 양식어업인의 어려움이 많았다.

품종보호권이 결정된 '햇바디1호'는

기존 잇바디돌김보다 씨앗주머니(각포자낭)에서 많은 씨앗을 방출해 김발에 씨앗 부착률이 높아 양식 기간 중 수확 횟수가 많아져 생산량도 많아 김 양식어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김 종자주권 확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5년 '해풍1호'를 시작으로 2017년 '해모돌1호', 2018년 '신풍1호', 2019년 '해풍2호'를 품종등록했다. 이번에 다섯 번째 개발한 '햇바디1호'가 품종등록돼 향후 20년간 품종 보호를 받는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2011년부터 어가에 분양한 김 종자는 4만9천642g으로 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종자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김발 2.2m×40m 152만 6천책을 시설하고, 물김 131만8천t을 생산할 양으로 지난해 전남 전체 김 시설량인 91만책의 약 1.5배에 이른다.

김은 건강식품이면서 섭취가 간편해 인기가 높아 바다의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수출 효자상품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양식 김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급변하는 해양환경 변화에도 김 양식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어업인이 요구하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품질 품종 개발을 통해 김 생산 안정화와 수출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김 산업은 생산성과 고품질 위주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도록 신품종 개발·보급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역별 맞춤형 신품종 개발을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Today

민주당 '계파 갈등' 재점화 되나 4면
지산동-조선대우회로 9일 개통 7면
U-20 월드컵, 伊 잡고 결승간다 16면

재개장 앞둔 무등경기장 2020년 4월 시작한 리모델링 공사가 3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광주 임동 무등경기장이 재개장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냈다. 공원화된 체육·여가·휴식 공간으로 6월 중 재개장을 앞둔 무등경기장은 내·외야 관람석을 철거했고, 향후 아마추어 야구경기장 기능을 유지한다. 구조 변경한 공간에는 인공암벽과 조깅트랙,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등이 들어섰다. /김애리 기자

광주 택시 기본료 '4천300원'…내달 30.3% 인상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천300원으로 오른다.

광주시는 지난 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확정했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천300원에서 1천원(30.3%) 오른 4천300원, 모범택시와 대형 승용택시는 3천900원에서 1천200원(30.8%) 인상된 5천100원으로 확정됐다. 단위 요금이 오르는 거리(134m)와 시간(32초),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 요금은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한다.

택시요금 인상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광주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1월 이후 4년6개월 만이다. /박선강 기자